

스티로폼 재활용 10년성과

1993년 4월 19일 스티로폼 재활용 단행사업의 추진 및 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급을 위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행위를 실천한지 10년이 지났다. 그간 경영의 활동과 성과를 살펴 본다.

1. 주요사업 추진 실적

가. 스티로폼 분리수거, 재활용 촉진에 주도적 역할

- 지자체를 통한 스티로폼 분리수거 재활용 체계 구축

○1996. 3월부터 시지역 지자체 분리수거 개시

- 가전완충재 역회수 재활용 체계 마련

○1996 삼성전자, LG전자 등과 재활용 협정 체결

-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

- 스티로폼 폐부자 회수 처리 캠페인 실시: 연안지역 6개소

나. 스티로폼 제품의 특성 및 재활용 홍보

- 협회보 "환경사랑"을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, 회원업체 등에 배포

○기고문을 통해 27명의 우호적인 환경전문가 확보

○모범적인 재활용업체 18개소, 형물업체 5개소 등 소개

- 재활용정보 자료집 및 홍보 팸플렛 발간 배포

- EPS 재활용 현지견학 26회(초등학생, 소비자단체 등 1,200명) 실시

- 환경전시회 13회(협회 부스 방문자 24,800명)참가

다. 재생업체 협력사업 추진

- 스티로폼 재활용 새집 개발 및 조사연구 추진

- 사진액자, 욕실발판 등 환경마크 획득

라.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강화

- 농산물상자 등 연구조사 3건 및 관련세미나 4회 개최

-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전세계 관련사이트 연계

- 국제기구 INEPSA, AMEPS, EUMEPS, AFPR 등과 교류 확대

- 학회 6개소, 사회단체 8개소 등과 유대관계 지속

- 환경부, 서울시 등 26개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



2. 주요사업 성과

가. 스티로폴 재활용율 증가

- 재활용량 연평균 20.4% 증가, 2001년 재활용량 27,252톤, 재활용율 53.5% 달성
- 재활용율 독일에 이어 세계 2위

나. 스티로폴 회수 재활용 체계의 구축

- 전국 215 지자체에서 346대의 감용기 가동 중
- 농수산물 도매시장 19개소, 수협공판장 4개소, 대형유통점 13개 등에서 감용기 설치 운영 중
- 민간 재활용사업자 증가: 1994년 38개소(8,010톤 생산)에서 2002년 81개소(16,000톤 생산)

다. 스티로폴 포장재에 대한 대중매체의 시각 개선

- 1995년 이후 KBS 9회, MBC 6회, YTN 2회, OUN 1회 등 18회 방영

라. 표창 수상 등

- 1998년 서울시 환경대상 수상, 환경부장관상 수상(단체 1, 개인 3명)

3. 기대효과(1994년 ~ 2002년: 총 176,633톤 재활용량)

가.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

- 소비자: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량 절감, 약 2,650억원 상당
- 지자체: 쓰레기매립지 수명 연장, 약 178만평(3미터 높이)

나. 산림 자원 보호

- 합성목재 대체사용으로 산림자원 보호: 소나무 약 123만 6천 그루 절약

다. 재활용업체 매출 증대 : 총 2,861억원

- 합성수지 재생원료 및 재생제품 생산: 138,189톤, 약 2,777억원 매출
- 경량폴: 22,384톤, 약 57.5억원
- 섬유 코팅제: 16,060톤, 약 26.6억원

라. 스티로폴 포장재에 대한 이미지 개선